

노블리스 오블리주, 미래사회 공동체리더십



박영숙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
(사)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의미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초기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이 봉사, 기부, 헌납의 전통을 낳았고 이러한 행위는 의무인 동시에 명예로 인식되면서 자발적이고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 등의 고위층이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은 확고했는데,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원로원에서 귀족의 비중이 15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든 것도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 귀족희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의 고위층 자체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여왕의 둘째아들 앤드루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했고, 당시 미8군 사령관 밴 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반드시 자녀들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것이 통념이다. 콜롬비아 법대를 다닌 미국의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엘리트로서 6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중 아들 4명, 즉 제임스, 플랭클린 델라노 주니어, 엘리엇, 존 등 모두가 2차대전에 장교로 참전했고 용감한 전투경력으로 훈장들을 받았다. 이들은 머리를 쓰는 전략보다는 몸을 던지는 용감한 행동으로 유명한데, 테디 루즈벨트의 삼촌들 또한 1차대전에 참가하였고, 그의 딸은 간호사로서 전쟁에 참가했었다. 린던 존슨 대통령의 두 딸 중 첫째 딸은 해병대 장교와 결혼하였는데,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둘째사위는 해병대 예비군이었던가 대통령의 사위라는 이유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그는 “내 자식을 전쟁에 보내지 않고 남의 아이만 전쟁에 보낼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아이젠하워의 아들 존 쉘든 다우드 아이젠하워는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엘리트 장교로 2차대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워 2차대전 영웅으로

훈장을 받았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였다.

서구의 태교법과 우리의 그것이 정반대다. 한국태교는 더러운 것은 보지도 만지지도 말고, 빼돌리지거나 상처 있는 과일도 먹지 말고, 사소한 일에 싸우지 말고 흥측한 물건은 주변에 두지 말라고 하며, 아름다운 사진을 방안 가득 붙여놓고 좋은 일만 생각하라고 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본인 시어머니는 독일출신) 임신을 하였으니,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만들기 위해 노숙자 차이나 장애인 또는 말기암, 에이즈 환자촌 등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다. 가장 고 통스럽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어야 뱃속의 아이가 통 큰 아이가 된다는 논리다. 미국의 몇몇 주는 임신한 부부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태교 교실에서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말이 있듯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운동은 어려운 이웃의 문제를 내문제로 생각하고 내 자식과 후손이 살아내야 할 좋은 마을을 남겨 주자는 운동이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공동체교육이 필요하다.

●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부족한 이유

행정자치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는 국민 20% 정도이며 이는 서구의 자원봉사 참여인구 30%보다는 낮다. 한국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활동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자. 여기에는 한국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가치관의 차이, 역사관의 차이, 경제 발전과 첨단사회 변화로 가는 상황에서의 문화나 가치관의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역사적 모범사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초기 로마시대의 왕과 귀족의 도덕의식과 술선수범, 1,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고위층 자제 2,000여 명 전사, 6·25전쟁에서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하여 35명 전사, 아이젠하워, 루즈벨트 대통령 등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이다.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는 충고와 함께, 임신한 부부 뱃속의 아이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경제활동인구이므로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 잘 키워서 지역사회 일꾼으로 내놓을 의무가 있다.”고 요구한다. 이러한 교육이 다민족 이민국가인 미국이 다양한 문화의 민족들로부터 애국심, 사회의무감, 국가공동체 형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촌인구 60억이 2050년에는 93억 명으로 늘어난다. 인도가 16억 중국이 14억이고 한국은 겨우 4천만이 된단다. 정보공유로 1인 에너지 발생량이 동일하여 1당100은 커녕 1당 2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 선진국처럼 고령인구를 부양해줄 후손들의 교육과 양육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It

변화를 알아야 한다. 특히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다. 무국경지구촌 시대의 애국심이나 지구촌공동체, 2017년에 다가오는 지구촌 인구 90%의 인터넷사용으로 지구촌 200여 개 국가는 하나의 문화로 통일되어가는 상황에서, 깊어지는 빈부격차를 사람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대량이주, 이민, 인구대이동 혹은 집단행동이 예상되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은 더욱더 증대한다. 한국 최초로 2005년 10월 중앙일보와 (사)한국자원봉사협회의는 한국 노블리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100명 서약식(기획위원장 박영숙)을 개최했다.

한국사회는 전통 유교사회로 '사농공상'이라는 클래스 시스템, 그리고 '문무 대신'이라는 제도에서도 문이 무를



앞선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종교전쟁으로 점철된 농경시대 서구의 노블리스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 힘센 사람이 전쟁터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국왕이 그 전공의 대가로 상류층 또는 영주직위 즉 공작 남작 백작 등 작위를 주었다. 이때 작위와 함께 땅과 성과 성안에서 농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작농을 함께 하사하였다. 이 노블리스는 자신의 관할 영토 내의 서민들을 먹여 살려야하는 의무도 함께 주어졌다. 서구에서는 공부를 잘하거나 시를 잘 쓰거나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영의정, 좌의정, 사포 등의 벼슬을 내리는 풍습이나 제도가 없었다. 유교사상을 신봉하는 이조시대에는 과거급제를 위해 청소년시절을 글과 도를 닦으며 보냈다. 글을 잘 써서 과거에 급제하면 사포라는 벼슬을 받고 상류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상류계급과 노비의 계급 등 계급사회가 뚜렷했고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이나 몸으로 남을 돕거나 전쟁터에 나가 혁혁한 전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다. 힘든 노동일은 하인이나 노비들에게 시키고 시원한 곳에서 글이나 읽으며 굶어 죽을 지라도 손을 더럽히는 일을 못하게 하였다. 노력봉사로 가난한 계층을 돕는 일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반하는 것이었다. 서구문화가 들어온 구한말에 지금 정동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당시의 외교관들이 영국대사관저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자, 초청되어 왔던 구한말 대신들이 “저렇게 힘든 일이면 왜 하인들을 시키지 스스로 하느냐?” 고 문의를 해와 영국외교관들이 파안대소했다는 기록이 영국 정부문서보관소에 보관 중이다.

둘째는, 한국은 아주 오랫동안 빈국으로 지내다가 월남 파병의 대가로 국내 산업이 발달하고 이어서 수출대국으로 발전하였다. 1988년 올림픽부터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적인 부가 축적되었지만 너무나 오랜 세월 즉 5000년의 역사동안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조상 탓으로 하고 가난한 사람을 보는 부자의 시각도 운명이거나 신분차이로 느꼈다. 서구의 민주공화국에서는 빈부격차가 타고난 팔자가 아니라 사회복지제도로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런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는 갑작스런 부유층 탄생과 산업시대의 미덕이 절약에서 소비로 바뀌면서, 부자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막아”라는 인식이 인정되었다.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내어 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지 않았었다. 특히 소비가 미덕이 되면서 국세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복지개념 결여로 부유층이나 노블리스들은 남에게 배려나 소외된 계층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 없이 스스로를 즐기는 데만 급급하였다. 소비가 미덕이라는 산업시대의 가치관으로 저축률이 떨어지고 수년 전에는 서구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 즉 돈을 벌지 않는 청소년계층이나 대학생들까지 카드를 발급받는 초소비사회로 접어들었다. IMF 경제위기 후에 이러한 초소비사회에서 갑자기 절약사회로의 되돌아오는 고초를 겪었다.

넷째는 한국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였지만 산업시대 첨단정보화시대에 들어와 핵가족으로 변했는데, 대가족제도에서 가족끼리 가정복지를 담당해오던 사회가 사회복지 쪽으로 개념이 바뀌었지만 사회인식 변화가 부족했다. 서구에서 출산 및 육아와 분배원칙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인데 비해, 아직도 가족문제는 가족들끼리 책임을 져야 하며 대가족, 핵가족, 독신가정, 극도의 개인이기주의로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남에게 베풀거나 나누어 써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개념이 정착되지 못했다. 갑자기 찾아온 물질적인 부와 핵가족 구성이나 개인주의 신봉은 이혼율을 높였고, 대가족에서 두부부만 책임지면 된다는 핵가족 개념, 그리고 오늘날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배타적인 가치관이 미덕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자녀교육의 목적을 서구의 엄마들은 십중팔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하지만 한국 엄마들은 “제 앞가림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사회의 가치관이 개인의 행복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 즉 복지사회개념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컨센서스가 될 이루어져 있다.

다섯째, 노벨상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상이다. 한국의 노벨상 열병을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왜 그렇게 노벨

상에 집착하는지 의아해 한다. 한국인들이 입학시험 치듯 갑자기 일등을 하려 한다고 느낀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칭찬할 때 ‘이놈은 노벨상 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 가지 발명을 하거나 작품 하나를 쓰면 주변에서 농담으로나마 노벨상을 운운한다. 그들은 한국이 노벨상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상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노벨상은 한두해 열심히 연습하여 따는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평생의 업적을 평가하며, 그 사람의 인류공헌도를 보는 것이다. 즉 그 유명인이 인류를 위해 얼마나 노블리스 오블리주로서의 의무를 다했는지 앞으로 그의 발명품의 미래 인류공헌도를 보는 것이다. 노벨 문학상은 한 사람의 작가가 한평생 쓴 작품을 보고, 그 사람이 인류에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어떤 기념비적인 성

렵하고 컴퓨터나 법 만드는 기술자가 법을 만들게 되어 정치인들은 국민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로 변한다. 연간 엄청난 양의 법을 만드는데, 국제화사회에서 각국에서 수백 가지 법을 만들다보면 앞으로는 너무나 복잡하게 얽힌 각종 법안은 컴퓨터가 아니면 헌법, 모법, 상위법, 관련법에 어떻게 연결되고 위배되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우리는 현대 정치사에서 정당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왔지만 정당정치는 19세기말에 탄생한 것으로 오늘날 첨단과학기술발전과 민주주의시대에는 그 강력하던 정치제도도 곧 소멸한다. 19세기말 정당은 이데올로기 및 사회계층 분리라는 바탕 위에서 탄생되었지만 현대사회, 특히 선진국에서는 이데올로기나 계층구분이 더 이상 중요치 않다. 사실상 국민들은 이미 좌파우파의 의미가 사라졌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부족한 이유는 첫째, 전통 유교사회에서 정착된 ‘사농공상’ 클래스 시스템 둘째, 빈부격차를 운명과 신분의 차이로 생각하는 가치관 셋째, 졸부의 탄생과 과소비 의식 넷째, 가족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다섯째, 노벨상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상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기여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다.

과를 올렸는지 어떤 훌륭한 사고를 정리했는지를 평가한다. 노벨상을 바라보는 작가라면 이제 세계인을 자신의 독자로 설정하여 세계인이 읽어도 재미있고 공감이 가는 “삶과 인생”의 이야기를 써야 한다. 한국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한국의 독자들에게만 어필 할 생각에서 벗어나 소재의 다양화를 꾀해야 하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소재로 해야 한다.

● 정치구도의 변화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필요로 해

정치인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여론수렴결과보다는 인터넷투표, 여론조사기관을 신뢰하게 되어 대의민주주의의 종말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신 직접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여론조사로 국민여론을 수

고, 우리 각각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 및 관심사, 가치관을 갖게 되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다양한 집단이나 그룹에 소속감을 느끼고, 복잡하게 중복된 정체성을 가진다. 첨단과학기술발전으로 국민, NGO그룹의 의사전달수단이 발달하여 공공정책수립에서 정당을 바이패스 하여 직접 정부와 접촉하고, 정당을 찾아가는 이해집단이 사라지면서 정당의 존재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의견수렴방법으로 남아있는 국민투표 또한 정당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고, 유권자는 정부를 직접 상대하고 있다. 스위스, 볼리비아, 캘리포니아주 정부 등은 정당, 의회 등 입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민의견수렴 즉 국민투표를 한다. 우리도 핵폐기물 처리장 주민투표가 시발점이다. 페르난도 헨리케 카르도소(Fernando Henrique Cardoso)는 정당정치의 종말이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OECD 최근 연구결과도 국회나 정당의 영향력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언론에 비친 국회의원들의 인품, 스캔들 때문에 국회신뢰도가 급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정당에 기초한 국회와 현존하는 국민대표제도에 대한 종말을 예고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고, 국민이 정당과 교섭하기보다는 정부와 접촉하고, 지방 민간지도력, 입법 활동 및 법정,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에서 정부공무원의 역할이 더욱더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선거구의 이권을 위해 국가이익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더 떨어질 전망이다. 영국정부 “2020년 정부운영 보고서”는 정당구조가 2020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망하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세계는 이제 완전히 다른 정치구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요구급증, 해결해야할 문제 산적으로 총괄적인 국민민의를 대표할 새로운 구조를 모색 중이다.

현 사회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2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잡성은 정보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3가지 특이한 변화를 겪는다. 첫 번째는 현재의 정치구조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커뮤니티라 불리는 단위 또는 공동체, 이웃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인터넷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하면서 너무나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좁은 지역 좁은 커뮤니티끼리 모여서 행복할 수 없고 내가 속한 커뮤니티는 이제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 지구촌이 나의 커뮤니티로 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얼마 전까지 공동의 가치라고 여겼던 사회결속력이 신속히 떨어지고, 스스로 믿는 가치관이 급속히 달라진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속한 물질적 육체적 커뮤니티에 관한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연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세계는 개개인의 자유주의 행동, 데모, 시위, 다양한 사회질서 유린으로 사회결집력이 떨어지고 불평불만이 높아지며 가치관변화와 약해진 학연지역 커뮤니티 결속력으로 복잡한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인위적인 사회구조형성은 불가능해진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면서 동일가치관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현존하는 규율, 예상, 지속성을 깨고 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사회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변하고 있다. 1945년에는 보통영국인의 나이, 성, 사회계층, 출생지역, 교육정도만 알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사람들의 가치관은 엄청난 복잡성을 띄면서 파악이 어렵고, 1980년대에는 계층간의 경계마저도 허물어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수시로 변하면서 측정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래서 이들을 대변한다는 대표,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그 큰 빈 자리에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원봉사활동으로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진다.

● 노블리스 오블리주 강화 방안

첫째, 노블리스 숫자 계산을 다시 해야 한다. 한국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블리스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상류층 또는 사회지도자층의 의무를 이야기 한다. 그런데, 상류층 혹은 사회지도자층중 노블리스인 사람들이 자신이 노블리스인지 모른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 20%가 일해 80%를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듯이 인구의 20%는 그 사회에서 상류층이다. 서구에서의 상류층은 5가지정도를 보고 정의를 내린다. 유명가문, 교육정도, 직업, 부유층 그리고 유명세다. 서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구의 10%를 노블리스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2000년 통계청통계로 42,168,811명일 때 대졸인구가 4,187,405명이다. 대졸 총인구를 다해도 10%가 안 된다. 2002년 통계로 의사가 78,609명, 2001년 변호사 총 수가 14,891명, 2005년 통계로 총 공무원이 916,481명, 장차관이 148명 등이라 우리나라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대학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그리고 최고기업 삼성인도 모두 노블리스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국회의원 299명 장차관 148명만이 노블리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노블리스는 대졸자 모두임을 재인식 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신속히 다가오는 변화와 트렌드를 연구하기 위해 우리도 서구처럼 “국가미래전략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비전 설정과 장기적인 정책대안의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미래연구가 필요하다. 미래사회의 도전의 예를 보면, 인구 고령화와 여성에서 세계인구가 2050년 90억이 되었을 때 60세 이상 노령인구 20억 명에 달하며 한국은 2050년이 되면 55세 이상인구와 55세 이하 인구가 같아진다. 에너지 부족과 자원고갈도 심각한데, 세계는 2025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54% 증가할 전망이며 여기에 16조 달러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한국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82%('02)로 향후 에너지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서 세계의 향후

화 혹은 글로벌 패밀리 사고가 절실하다. 여기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들이 돌아와서 모국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미래는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거나 독립된 개개인만 있지 공동체가 없는 세상이 온다. 재택근무 원거리근무나 사이버상의 근무를 통해 협동심과 지구촌 공동체 및 한시대의 공동체의식 지구촌시대에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가고 있다. 편 가르기, 남 비난하기, 스스로 잘난 극단 이기주의, 지역화 분권화로의 지역이기주의 등 갈가리 찢어지고 흩어지는 공동체관심을 한군데로 엮어가기에 힘이 든다. 정부의 거버넌스의 해결책으로 법적 강제적 조치가 소용이 없는 미래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 사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지구촌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제약이 되

서구에서는 인구의 10%가 노블리스이다. 한국의 인구 10%는 470만 명이지만 대졸인구는 420만 명이며 이중 의사 7만9천 명, 변호사 1만5천 명, 공무원 90만 명으로 사실상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노블리스라는 재인식이 필요하다. 개인 이기주의 사고를 버리고 공동체의식 만들기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안인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만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시대가 오고 있다.

50년간 온실가스 축적규모는 지난 50년간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야기될 것이다. 한국도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권이며, 2020년에는 2000년 대비 80% 증가가 예상된다. 지역·계층간 격차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인데, 아시아 인구의 66%가 하루에 1달러로 생활하며, 한국은 OECD국가 중 빈곤률·실업률·소득분배율·민주주의·부패지수 5개 지표를 놓고 20개국과 비교한 결과는 18위(2003)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가미래전략기구나 국가미래기획원을 설립하여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세우고 여타 30개국처럼 2020 국가미래보고서를 국민에게 바쳐야 하며, 공동체의 끈끈한 접착 및 협력을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전략을 펼쳐야 한다.

셋째, 지구촌 1일 생활권이 5년 후면 온다. 한민족 다문

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스스로 앞장서서 세계인들을 이끌어가는 기제가 필요하다. 빈곤이나 정치적인 동요지역에서 부국으로의 인구나 민족대이동이 예측된다. 인구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으며, 지구촌의 문화동질화가 본격화되면서 신체적인 거주지만 다르지 세계시민으로의 동질감이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이민정책이 없는 나라이지만 해외교포나 다양한 한국어를 쓰는 한국동포들에게 문화를 개방하여 그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요구하면서 한민족공동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국가미래전략의 하나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활동의 중요성은 미래사회에 뿔뿔이 흩어지는 개개인의 이기주의 사고와 공동체의식 소멸로 지구촌 컨센서스 만들거나 활동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안으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만이 대안인 시대가 오고 있다. 🐼